

美언론, 韓여객기사고 톱뉴스 보도...“정치격변 와중에 발생”

전문가 “사고기종 보잉 737-800 국제항공교통 중추”
보잉 본사 등 사고 원인 규명 위한 인력 파견 예상도

29일(한국시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를 낳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해 미국 매체들도 신속히 보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주요 신문들은 온라인 톱뉴스로 사고 발생 사실과 인명피해 상황, 추정되는 원인 등을 전했다.

긴급 뉴스로 사고 소식을 전한 CNN은 사고기가 미국 보잉사의 보잉 737-800 기종이라고 소개하면서 미국 보잉 본사에서 한국에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인력을 파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CNN의 인터뷰에 응한 전 연방항공국(FAA) 조사관 데이비드 소우치는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에 대해 “대단한 (안전 운항) 기록을 가지고 있는 국제 항공 교통의 ‘중추’로, 전세계에서 운용되고 있다”며 “그래서 이 모델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 내게는 극도로 놀랍다”고 말했다.

WSJ은 보잉 737-800에 대해 “보잉 737 맥스의 이전 모델로, 강력한 안전 기록을 갖고 있으며 상업용 항공기의 주력 기종”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사고 기종인 보잉 737 계열 항공기 중 ‘보잉 737 맥스’ 모델이 여러 사고에 연루된 이력이 있으며, 이번 사고 기종과 동일한 보잉 737-800 기종도 올해 미국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고 이력이 보도된 바 있다.

지난 1월5일에는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알래스카항공 1282편 보잉 737 맥스9 여객기가 약 5천m 상공을 비행하던 중 참모와 벽체 일부가 뜰려 나가면서 비상착륙을 했다.

경상자가 여러 명 나온 이 사고에 대한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예비조사 결과, 비행기 조립시 문을 고정하는 볼트 4개가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3월8일에는 텍사스주 휴스턴

국제공항에서 유나이티드항공의 보잉 737 맥스8 기종이 착륙해 활주로를 주행하던 중 포장된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보다 멀게는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 에어 소속 보잉 737맥스가 추락해 탑승객 189명이 모두 숨졌고, 그로부터 5개월 후인 2019년 3월에는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가 소프트 웨어 결함 등으로 이륙 6분 만에 추락해 157명 전원이 사망했다.

두 건의 추락사고 이후 미 연방항공청(FAA)을 포함해 전 세계 항공 당국이 보잉 737맥스 여객기 운항을 전면 중단했다가 2020년 11월 이후 미국과 유럽 연합(EU) 등을 시작으로 운항 재개를 허용한 바 있다.

이번 무안공항 사고 기종과 같은 보잉 737-800 모델의 경우 3월6일 피닉스로 향하던 알래스카항공 여객기의 객실에서 연기가 감지돼 여객기가 포틀랜드 공항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다.

또 같은 달 15일에는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의 보잉 737-800 여객기가 목적지인 오리건주 남부 로그밸리 국제제드포드 공항에 착륙한 후 점검 과정에서 외부 패널 한 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 일도

구설에 올랐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국면에서 한국이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악의 사고까지 더해진 사실을 부각한 매체도 있었다.

WP는 “이번 사고는 한국이 잇따른

권력 이전(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탄핵소추 등을 의미)과 ‘누가 국가 최고위직을 책임지느냐’를 둘러싼 일시적 혼돈에 따른 정치적 격변 속에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WP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

통령의 직무정지 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연쇄 탄핵소추를 거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취임한 직후 대형 항공사고에 직면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중국 고속열차 프로젝트 CR450 시제품 공개 중국이 시속 400km급 상용 고속열차 시제품을 공개했다. 29일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국유기업인 중국국가철로집단은 이날 베이징에서 시제품을 선보이면서 고속열차 개발을 위해 2021년 개시한 ‘CR450 과학·기술 혁신 프로젝트’가 중대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CR450 시제 열차의 시험 속도는 시속 450km, 운행 속도는 시속 400km이며 제동 거리가 현존 열차들에 비해 더 짧아 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신화=연합뉴스

“美·中 대화채널 삭제...트럼프, 직접대화 원해”

WSJ “공식채널로 결과 얻기 힘들다 판단...中, 예측가능성 선호”

내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그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과 구축해온 대화 채널이 다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전망했다.

WSJ은 트럼프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 둘 다 중국에 강경한 입장이지만 중국을 상대하는 전략이 매우 다르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2017년 첫 임기를 시작하기 전 양국 간에는 90개가 넘는 공식 대화 채널이 있었지만, 그가 임기를 마칠 때에는 사실상 전부 없어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런 대화는 중국이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해로운 정책은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서 미국을 끝없는 대화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여겼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 경쟁으로 악화된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몇 년 중국 정부와 대화를 재개해왔으며 20여개의 고위급 채널을 구축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채널을 유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WSJ은 전했다.

이에 대해 캐롤라인 레빗 트럼프 정권 인수팀 대변인은 “미국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맞서고,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기를 바라며 그를 선호했다”고 밝혔다.

반면 중국은 미국과 대화가 자국 이익에 항상 부합한다고 보며 반복되는 대화 장치에서 얻을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선호한다고 WSJ은 설명했다.

중국 지도부는 트럼프 팀과 비공식 대화 채널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트

럼프 2기 행정부가 관세를 중국과 무역 협의를 협상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지, 미국 경제를 중국과 더 분리하려고 하는지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 당국자들은 지도부에 가해질 정치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해진 외교 의례를 따르는 것을 선호하며 미국을 상대할 때 기존 사고방식이나 관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고 WSJ은 관측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전례를 깨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자기 취임식에 초청했고,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참석이 양국 간 긴장 완화에 도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시 주석은 참석할 계획이 없다.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트럼프 팀이 시 주석의 비서실장 격인 차이치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등 시 주석의 핵심 참모들과 직접 소통하고 싶다는 의사를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번엔 1조8천억”...미국에 석달 쌓인 복권대박 터졌다

3억260만분의 1 확률...29년 동안 연금 형태 지급

3개월간 누적이던 당첨금 12억2천만달러(약 1조8천억원)의 주인이 결정됐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인 복권 중 하나인 ‘메가 밀리언스’는 이날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첨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메가 밀리언스의 1등 당첨금은 29년에 걸쳐 연금 형태로 지급된다.

다만 대부분의 당첨자는 일시불 수령을 선호한다. 만약 이번 1등 당첨자가 일시불 수령을 선택할 경우 당첨금은 5억4천970만달러(약 8천114억원)로 감소하게 된다.

메가 밀리언스는 1-70까지 숫자 중 5개를 선택하고 다시 1-25 숫자에서 하나의 메가볼 번호를 찾는 방식의 복권이다. 1등 당첨 확률은 3억260만분의 1에 불과하다.

한국 로또의 1등 당첨 확률인 814만5

천60분의 1과 비교할 때도 무척 낮은 확률이다.

지난 9월10일 1등 당첨자가 나온 후 3개월 만에 1등 당첨자가 나온 것도 이같이 낮은 확률 때문이다.

메가 밀리언스의 역대 최고 1등 당첨금은 지난해 8월 플로리다에서 나온 16억달러(약 2조3천616억원)였다.

한 주민이 메가 밀리언스 복권을 사고 있다.

메가 밀리언스와 미국 복권시장을 양분하는 파워볼에선 지난 2022년 20억4천만달러(약 3조원)의 당첨금도 기록됐다.

파워볼은 1-69중에서 5개의 숫자와 1-26중에서 ‘파워볼’ 번호 1개 등 모두 6개의 수를 알아맞히는 방식의 복권이

다. 이 복권의 1등 당첨 확률은 2억9천220만분의 1이다.

/연합뉴스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 2. 신속하고 확실한 A/S
-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리티 품질

고급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파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봉나이프 / 과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과탄성 카본 100% (8형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보 완전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봉나이프 / 과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봉나이프 / 과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과탄성 카본 100% (8형9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CMYK